

파주 보광사...양산 천불사...안동 월봉사

사찰 납골시설 건립 지역이기주의로 난항

계획 연기·포기 속출

사찰 납골당 건립이 지역이기주의로 혼란을 겪고 있다.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찰중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는 지난 3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내에 6천여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최근 일부 주민의 반대로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 양산 응암사 천불사는 올해 초부터 복제주근 애월을 일대에 1만

4천여기 규모의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해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화장장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아예 포기한 상태다.

천불사는 또 지난해부터 사찰 내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장학회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최근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보았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장학회 설립이 늦어지자 지역주민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양산 원동면 동산사는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99년부터 추진해 오던 납골당 건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폼바인과 트랙터 등으로 사찰 진입로를 차단하며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은 "절은 승배의 대상이지 혐오시설을 짓는 곳이 아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문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북 안동 월봉사도 납골당 일대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오다 지역주민들이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 경기 하남 광덕사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건립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경기 광주 교현사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납골당 건립에 차질을 빚다가 지난해 말 지역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들 사찰의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타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각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교수)은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이 지역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본지보도이후

서남단 가거도 용공사

책·법문테이프 잇단 후원

본지 317호 38면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 목탁소리' 기사가 보도된 후 가거도 용공사에 불서와 법문테이프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각회 이종하 국장은 10일 빠른시일내 가거도 용공사 지원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각회 신하 불광사 불광출판부에서 발간한 불서와 법문테이프 등을 1차로 보내고, 법사지원 방안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9일에는 불자인 순현석(43, 경북 울진군씨가 법문 경전 찬불가 등의 불교테이프 일체를 발송했다. 순씨는 "가거도의 불교가 더욱 융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테이프 등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가거도 용공사에 한 비구스님이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왔으며, 보름간 머물며 신도들에게 수행지도도 해주고 가거도 불자들이 복밀라 하는 법문도 해줬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육지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큰 힘을 얻었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원우 기자



<5일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부지에서 거행된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건립 기공식에서 천태종 종단 스님들과 내외귀빈이 시삽을 하고 있다.

천태종 금강대 건립 기공식

천태종은 5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부지에서 종립 금강대학교 건립기공식을 갖고 오는 2003년 3월 개교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불사에 들어갔다.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교는 불교종교와 인재양성이라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스님의 유지에 따라 지난 82년 대학설립을 결의한 지 19년만에 첫 삽을 뜨게됐다.

건립기공식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윤덕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관측사 주지 탄우스님,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심대평 충남지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공테이프 절단, 시삽, 경과보고, 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월원 각대조사님의 열반 27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유지를 종단의 숙원사업인 금강대학교의 기공식을 갖게 돼 참으로 감회가 벅하다"며 "금강대의 건립을 위해 우리 모두 정성과 힘을 모아 불교종교와 인재양성의 선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사찰·문화재 1km 내 러브호텔 못짓는다

경기도, 7월부터 시행방침

경기도 내 사찰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 사찰·문화재·명승지·유인지 주변 등지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내 시·군의 관련조례 제·개정이 모두 끝날 경우 사찰과 문화재, 명승지로부터 1km 이내에서는 숙박시설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한명우 기자

개성 영통사터 고려유물 다수 발굴

북한 개성 영통사터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발굴조사 중인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에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묘실터, 부도를 비롯해 소형돌탑, 불상조각들과 각종 구슬, 고려자기, 도기, 금속기 등 고려시대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고 평양방송이 6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영통사의 동북 모서리에서 발견된 의천스님의 묘실터는 1101년 10월 의천스님이 입적하자 화장한 후 뼈를 이곳에 매장했던 것으로, 양지바른 능선에 3단으로 조

성돼 있다.

대각국사비는 영통사터 동쪽 중문 축대 남쪽에서 발견됐으며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 위 비석에 의천스님의 경력과 업적, 여러 문양이 새겨져 있다. 서북쪽 구역에서도 8각 탑형 부도의 기단돌과 지붕돌, 그리고 지붕돌 위에 놓이는 상면부의 일부 장식돌이 발견됐다.

서쪽 구역에서는 4동의 건물터와 탑이 발견됐는데, 금당에 해당하는 보광원은 4면을 돌로 쌓은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 한의대생 102명

'사후시신기증' 단체 서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최달영) 한의예과 2학년 학생 102명 전원이 최근 '사후 시신기증서'를 학교에 제출해 화제다. 학생들은 3일부터 시작된 해부학 실습을 앞두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의학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증서에 서명했다.

동국대 한의대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341명의 학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시신 기증서약을 받기는 했으나 한 학과 전체학생이 시신을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명우 기자

'이웃종교 이해강좌'

KCRP, 내달 27일까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대화분과위원장 김희성 서강대 교수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이웃종교 이해강좌'를 연다.

강좌는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월요일)와 종교 원로와의 대화, 각 종교의 의례 문화와 소개수업(일요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1일과 23일에는 각각 정병조 동국대 교수와 불광사 주지 성타스님이 강좌와 대화의 마당에 나선다. 장소는 서울 종로성당. 정성호 기자



<故 정주영씨의 49재는 독실한 불자인 정씨의 여동생 정희영 보살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정주영 명예회장 49재

8일 도선사에서 봉행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9재·8일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과 주지 광복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자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 종회의원 혜창스님, 고인의 아들인 봉준, 종생 세영씨 등 가족 50여명이 참

석했다. 500여명의 도선사 신도들도 정씨의 49재에 동참했다.

정씨의 49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화계사 조실 송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영가법문을 통해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르도다"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정씨의 49재를 도선사에서 봉행한 것은 독실한 불자인 정씨의 여동생 정희영 보살이 혜성스님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정성호 기자

의문사 진상규명

'가요 콘서트' 연다

4개교단 인권위, 20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의문 속에 사라져 간 사람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일에 종교계가 나선다.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교단 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산 자여 말하라'를 개최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콘서트에는 가수 전인권, 정태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과 자유, 이은미, 강산에, 박해경, 서문탁, 성시경 등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오른다.

공연 수익금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제보를 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02737-3313. 김재경 기자

도와주세요

년 4회 의안교체수술

선천적인 장애로 매년 네 차례씩 의안교체수술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

강원도 원주 심향영음악원에서 사는 6살 난 박창민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쪽시력을 상실해 성장이 멈추는 19세까지는, 매년 네 차례씩 의안교체수술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력을 상실한 눈의 퇴화로 인해 외모가 일그러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 하지만 형편이 열악한 육아원에서 한 차례 60만원씩 매년 240만원이 소요되는 의안교체수술비를 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움주실 분은 734-8050(생명나눔실천회)번으로 연락하거나, 은행계좌(좌번호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Life's Light' (神燈) featuring a lamp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a contest. Includes a list of symptoms and a prize of 100,000 won.

Advertisement for 'Cheongdong' (청동) bronze statue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ddha statue and text about the company and its products.